

서울 지역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ies of Lives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in Seoul

서울예술대학 교양학부

교 수 유 혜 경*

Dept. of Liberal Arts,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rofessor : Yoo, Hye-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such as self-esteem, social supports,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degree of disability in child, stress coping, religion, and sports-exercise on the qualities of lives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Data were collect from 45 institutions(schools from kindergarten to senior-high,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86 mothers in Seoul whose children were attending the schools or institutions.

Finding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as follows:

1.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in this study thought their quality of life as average degree.
2. The younger the mothers and children,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was.
3.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was.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pouse, and between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religion as well.

Finding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re as follows:

1. Among 7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beta=49$, $p<.001$), 'social supports' ($\beta=.15$, $p<.01$), and 'socio-economic status' ($\beta=.11$, $p<.05$)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quality of life in mothers, while the rests were found not significant.
2. 'Self-esteem'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 meaning that the psychological factor such as self-esteem is more important than environmental factors in qualities of lives in mothers.
3. The total amount of explanation of the model was Adjusted R square=.301, so that it can be said about 30% can be explained among total variance of the qualities of lives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are:

Firs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nduct programs promoting self-esteem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and to include 'self-esteem' hereafter in the studies related to qualities of lives in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Second, comprehensive and practical countermeasures should to be formulated to back up expenses for education and medical care, purchasing relative tools and equipments, plus helping to find jobs.

▲주요어(Key Words) : 장애아어머니(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삶의 질(quality of life), 자아존중감(self-esteem),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주 저 자 : 유혜경 (E-mail : ninayookr@yahoo.co.kr)

I. 서 론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구심점이 된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한 가정 내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관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조추용 등, 2006)을 비롯하여,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가족 전체가 무기력한 침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연구(김정진 · 김미옥, 2002), 또 부모와 자녀 간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관성이 아버지와의 상관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의철 · 박영신, 2001) 등은 모두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비장애아동의 어머니보다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본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장애아 어머니의 경우에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장애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밀착적인 보호라든가 교육이나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한 이동시의 동행과 같은 부수적 활동과 함께, 종종 교사나 의사가 처방한 지시사항을 일상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보조교사 또는 간호보조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장애자녀로 인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적 또는 대외적 활동의 감소, 나아가 장애자녀로 인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저하 등, 장애아 어머니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상훈 등(1998: 34)은 “장애아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용호 등(1999: 109)도 “장애아 어머니들은 일반아동의 어머니들보다 정서적으로 우울이 더 많고 삶의 질도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또는 복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는 가정 전체의 행복에 미치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아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장애아 어머니들과 나아가 장애아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아 어머니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동시에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박혜진 · 박경란, 2004; 전수진, 2004; 이상훈

등, 1999)로부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 간의 상관을 다룬 연구(김나영 · 윤호열, 2000; 황미희, 2002; 이상훈 등, 1999; 정청자, 1988; Singers & Farkes, 1989),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주안점을 둔 연구(김교현 · 변주환, 2007; 전해자 · 김미량, 2006; 임성옥 · 박민정, 2006; Dyson, 1997),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최중옥 · 허정옥, 2002; 이경희, 1993; 김정희, 1987; Truner & Cunningham, 1991; Sloper et al., 1990; Lazarus & Folkman, 1984;),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타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양귀화, 2001; 임지향, 2000; 제갈광철, 2000; 심미경, 1997; 장진국, 1995), 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이현지, 2004; 전수진, 2004; 강선경, 2002) 등 다수가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종교의 유무라든가 또는 여가활동 관련 사항이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장애아 부모 또는 가족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Cambell & Converse, 1981; Hadaway & Roof, 1978)에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환기된데 비해, 국내의 연구(이윤화 · 권진옥, 2002; 최중옥 · 허정옥, 2002; 오길승, 1994)에서는 부수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한편 여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체육학분야를 중심으로 여가활동의 다양성(장순용 · 김송희, 2003; 박진영 · 박태영, 2001)이나 스포츠와 운동(김광호 · 오광진, 2004; 박선영 · 김준희, 2000; 임승엽, 2000)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어 눈길을 끈다.

상기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 등과 관련하여 수행된 적지 않은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사 또는 연구 실제 상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몇몇 요인에 국한되어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학문적 영역에 따라 중시되는 요인이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스포츠나 운동의 효과는 체육 관련 학문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가정학이나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에서는 별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종교는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취급될 뿐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할 때에는 자녀의 장애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이 장애아 어머니가 처한 객관적인 사실 또는 물리적 상황과 함께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요인, 주변과의 상호작용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 나아가 종교의 유무라든가 스포츠나 운동을 하는가의 여부 등 선행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 연구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총망라하기란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하다고 보고된 몇몇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학이나 사회복지학분야를 비롯해 체육학분야, 정신의학분야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주요요인과 함께 이제까지는 부수적으로만 취급되어온 종교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제 요인들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상황 하에서 각 요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조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의의는 이와 같은 총체적 접근에 있다. 장애아어머니들의 행복 증진에 궁극적인 뜻을 둔 본 연구는, 연구의 실제에 있어서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주요요인들이 타 요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장애아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 요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영역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수입이라든가 직업, 학력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인간의 행복을 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이나 복지를 재기 위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 또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도구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각 내지는 평가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 간의 구분에 있어서 김봉선(2007)은 주관적 안녕감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심리적 안녕감보다 하위 개념으로 둘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점에 있어서 크게 대별하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서적, 인지적 요소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 그리고 다양한 요인이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등을 자신의 기준을 토대로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생활환경에 대해 내리는 비교나 평가로 보고 있다(김봉선, 2007). 다음으로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판단이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수정·안신호, 2005; Arthaud et al., 2005; 김명소 등, 2001). 한편, 인간의 삶이 여러 하위영역이나 체계 또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가족 상호작용을 비롯해 일상생활, 양육,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녕감, 건강 등 열 가지 하위체계로 나누기도 하고(Park et al., 2003), 가족 상호작용, 일상생활, 양육, 경제적 안녕감의 네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며(이창미, 2007; Turnbull & Turnbull, 2000), 또는 개별 생활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임희섭, 1996).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고, 비교하고, 평가한다고 할 때 인지적 기제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정서적 요소 역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의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적 측면, 종교, 여가생활, 직업 등 여러 국면 또는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기한 제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보다는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을 둘러싼 가정을 비롯한 환경 전반과 삶 전체에 걸쳐 지각하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며, 특성에 있어서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둘 다 작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기로 하며, 범위에 있어서는 상기한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 또는 주관적 안녕감 등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만족도를 비롯하여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김의철 등(2000)은 2,7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과 성인, 노인 모두에 있어서, 세대간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는 장애아가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장애아가족과 관련하여 경제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수입이 높을수록 가족 적응 수준이 높다는 오승아(2002)의 연구나 가정의 소득이 장애아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김나영과 윤호열(2000)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장애아가족에 있어서는 장애자녀로 인한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가족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이상훈 등, 1999).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직접적 경비 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한에서 비롯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역시 큰 스트레스로서 이러한 문제가 생활만족도로 직결된다는 것이다(전수진, 2004). 1995년과 2002년에 시행된 각각 다른 두 연구는 장애자녀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장애아동 가족 월평균 소득의 약 32~3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전혜연, 2002; 정소연, 1996).

주지하다시피 개인의 수입 또는 소득은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흔히 수입이라는 단일 지표보다는 학력(교육정도), 직업, 수입(소득)과 같은 세 지표가 흔히 사용되어 왔다. 장애아가정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고(박혜진·박경란, 2004; 홍성희, 1994)도 있고 보면, 장애어머니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또 자신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하는 것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개인이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갖는 일종의 평가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유사하게도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위계상으로는 자아개념의 하위 요인으로, 그리고 특성상으로는 평가적 요소로 간주된다.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는 김미옥 등(2002), Miller(1986)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 그리고 김정희(1987), Aspinwall과 Talor(1992) 등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장애어머니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또는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는데, 전유경(2003)과 제갈광철(2000)의 두 연구는 장애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양귀화(2001)도 자폐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애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과 연관시킨 연구는 많지 않지만, 상기한 연구로부터 장애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심미경(1997)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r=.76$ 이라는 높은 상관을 보고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장애어

머니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란 문제나 사태에 대하여 한 개인이 부담이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장애자녀의 양육이 일반 아동에 비해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과 걱정, 자녀의 장애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과 괴로움, 회피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재활과 교육·의료비용으로 인한 부담, 이해 부족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관계의 부담 등은 장애아부모에게 스트레스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임성옥·박민정, 2006). 그런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여기에 잘 적응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스트레스 이론가들은 대처방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한 개인이 사내나 문제를 다루는 노력이나 행동, 또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가 스트레스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 장애자녀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같은 여러 변인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장애아부모의 적응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한 한 연구(Middlebrook, 1987)는 대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유형(대처방식)은 다양하게 구분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환경적 조건이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인 문제집중적 대처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인 정서집중적 대처 둘로 나눈다. 김정희(1987)는 대처 행동을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소망적 사고, 정서 중심 대처의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다시 적극적 대처(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와 소극적 대처(소망적 사고, 정서 중심 대처)로 나누었다. 그리고 Pearlin 등(1990)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증상을 감소시키는 상황의 해석에 대한 관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관리의 세 측면을 제시했다.

대처 방식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연구한 Sloper 등(1991)의 연구는 문제해결적 대처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식과 정서적·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같은 대처 방식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대적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견지에서 정재은과 최희선(1995)은

정신지체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형이 스트레스에 가장 효율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박혜진과 박경란(2004)은 장애아어머니의 세 가지 대처행동 중 기분해소형 대처방식이 적극적 노력형이나 회피형보다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의 장애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나 사회적 지원의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 대처와 기분해소형 대처가 회피형이나 소극적 대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원이라고도 하며, 이는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도움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달리 말하면 사회관계망의 범위라 할 수 있다.

비장애아동의 어머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장애아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장애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 또는 스트레스 대처 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예방적·보호적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가족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오가실, 1994), 부모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며(이현지, 2004), 가족의 긍정적 적응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istol, 1987).

장애아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는 남편을 비롯하여 장애아동의 친·외조부모, 친구, 이웃, 병원이나 학교의 전문가,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장애아 부모 모임,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지지 자원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선경, 2002; 문진하, 1994; 정청자, 1988; Fagan & Schor, 1993).

6. 스포츠·운동

90년대에 들어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여가를 그저 쉬는 시간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삶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저학력자일수록 비활동적이며 여가를 일상적으로 집에서 소일한다는 보고(김광기, 2002)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어머니의 경우에는 주부로서의 일상적인 가사노동 이외에도 장애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전혜자·김미량, 2006)는 이러한 실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여가 유형, 즉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적극적으로 여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만족도가 소극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편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보고들이 부각된다(박선영·김준희, 2000; 임승엽, 2000; 김경태, 1997; 김양희, 1997). 관련된 연구로 장순용과 김송희(2003)는 성인 남녀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여러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여가유형 집단이나 소극적 집단에 비해 여러 하위요인에서 1위 또는 2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장애아동 가족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우선 이용호 등(1999: 107)은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높을수록, 갈등이 낮을수록 장애에 대한 가족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으며, 김광호와 오광진(2004)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부각되는 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이나, 직업의 유무, 가정의 수입, 가사노동 시간과 같은 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생활체육 참여 여부가 장애아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나 운동 실시 여부가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7. 종교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종교를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많은 경우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장애아가족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우선, 장애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최중욱과 허정옥(2002: 70)이 뇌성마비 학생 어머니와 정신지체 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어머니 집단이 종교가 없는 어머니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처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청자(1989)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교를 가진 어머니들이 무종교 어머니들에 비해 비장애자녀로 하여금 사회생활 부담감을 더 적게 느끼게 한다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윤화·권진욱, 2002). 장애아어머니 뿐 아니라 장애인 자신들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오세란, 2005; 40).

미국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Hadaway와 Roof(1978; 권경

득, 200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종교와 심리적 안녕 또는 생활 만족도 간에 매우 높은 관계를 발견했는데, 즉 종교활동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과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종교활동 또는 교회 참석 빈도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나 인구학적 변인보다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힘입어 Cambell과 Converse(1981)는 종교활동이 성실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성실하다거나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에도 이런 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는데, 권경득(2000; 337)은 종교활동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보상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지라도 종교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상기한 바에 의하면, 종교와 삶의 질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가 아닌 종교 활동 빈도나 또는 종교에 대한 성실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자녀의 장애 정도

자녀의 장애 정도를 비롯하여 장애 유형, 연령, 성별, 연령 등과 부모의 스트레스나 적응,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자녀의 장애가 심할수록, 그리고 장애가 중복된 경우 부모로서는 더 힘들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나영과 윤호열(2000)의 아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를 비롯하여, 유사하게 장애가 심한 아동의 어머니일수록 심리·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황미희, 2002). 또 중복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단일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문정희, 1995).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Bristol, 1987; Kazak & Clark, 1986).

상술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손상희와 박재국(2003)이 지적부자유아의 뇌 손상 여부와 중복장애 여부가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자녀의 장애가 심하다거나 중복장애가 있을 때 경미한 장애에 비해 가족구성원들의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장애 정도가 장애아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한 요인들 이외에도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장애자녀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동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아동의 성별, 자녀의 성격 특성, 자녀의 장애가 지속된 기간 등이 있고, 장애아부모와 관련된 사항으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 부부 간의 의사소통, 및 장애아동의 형제,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따른 연구 결과들은 아직 일치되지 않거나,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준하여 다루어져 왔거나, 또는 아직 더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으므로, 주요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상기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물리적 환경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장애 정도’가 선정되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중 ‘적극적·기분해소형 대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인으로 ‘운동·스포츠 실시 여부’와 ‘종교활동 빈도’, 그리고 대인관계 관련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같이 모두 일곱 요인이 추출되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들로서, 지역의 경제수준(상, 중, 하), 자녀의 연령(초, 중, 고)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표집하였으며, 최종 선정 단위는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재활 또는 치료시설이었다. 선정된 기관은 총 45개 기관으로, 유치원 6개처, 초등학교 9개처, 중학교 8개처, 고등학교 5개처, 특수학교 4개처,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10개처, 치료 및 재활 시설 3개처였다. 질문지 조사는 연구자가 사전에 기관장에게 전화로 조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한 후, 본연구자와 5명의 조사원이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기관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질문지 조사 협조의뢰서와 함께 조사를 실시할 담당자에게 우송하였다. 수거 시에도 유사한 방법을 취하였다.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외에 2명의 전문가가 질문지를 검토하였다. 이 질문지로 2008년 6월 23일부터 27일에 걸쳐 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로 문항 이해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걸쳐 시행하였다. 총

552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386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약 7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중요 변인 또는 인적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계적 반응이 뚜렷한 질문지는 제외하고, 339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행동, 사회적 지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네 가지의 척도와 종교, 스포츠·운동 관련 사항 및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항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세 영역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어머니 나이, 장애자녀 나이, 자녀의 장애 정도, 배우자 유무를 묻는 네 문항을 사용했다. 장애정도는 어머니가 '①1급~⑤경미한 장애'라는 5단계로 된 답지에 직접 응답토록 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는 데는 가정 생활비를 버는 사람의 직업(노동직·비정규직에서 전문직까지 5단계), 응답자 본인과 남편의 학력(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석사 이상까지 6단계), 가정의 월 평균 총수입(100만원이하에서 501만원이상까지 6단계)을 묻는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직업, 학력, 수입의 비중을 동일하게 한 후, 세 지표의 합산점수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로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도구를 전병계(197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리커트 타입 5단계 척도로 된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 각 5개 문항 포함 10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로는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 .82$ 로 나타났다. 동일 척도를 사용한 이영자(1994)는 .79, 전유경(2003)과 박내천(2007)은 각각 .94로 보고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한 후 총 10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자아존중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도구로는 박혜진과 박경란(2004)의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노력형 5문항, 기분해소형 2문항, 회피형 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리커트 타입 5단계 척도로 되어있으며, 그들은 하위요인별로 Cronbach $\alpha = .76, .69, .64$ 의 문항내적일치도를 보고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극적 노력형 5문항과 기분해소형 2문항, 총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내적일치도는 적극적 노력형과 기분해소형이 각각 Cronbach $\alpha = .79$ 와 $.71$ 로 나타났다. 7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 점수를 산출하였다.

4) 사회적 지지

남편이나 가족, 이웃 등의 비공식적 지지원 9항목과 학교나 병원, 복지관 등의 공식적 지지원 4항목의 총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도움의 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부터 '항상 도움이 됨'까지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도움의 정도를 반응하게 하였다.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회적 지지 점수로 사용하였다.

5) 스포츠·운동 실시

일상 가운데 스포츠나 운동의 어느 정도 하는지를 묻는 한 문항('거의 하지 않는다'에서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까지 6단계)으로 되어있다. '스포츠·운동 실시 여부'의 분석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를 0으로,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경우 응답 1에서 5까지의 사례수를 모두 묶어 1로 더미코딩하여 사용하고, '스포츠·운동 실시 빈도'의 분석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종교

종교 유무, 종교의 종류, 종교활동 참여빈도(1년에 한두 번에서 1주일에 두 번 이상까지 5단계)를 묻는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교활동 참여빈도는 응답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종교 유무 문항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에 0점을 주고 종교활동 빈도를 묻는 문항과 합하여 recoding하여 종교 활동 참여빈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7) 삶의 질

삶의 질 측정 도구로는 Campbell(1981)이 개발한 Index of Well-being을 이명신(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질 척도는 최근 몇 개월간의 삶의 상태를 정반대로 나타내는 형용사 둘을 양극으로 하는 7단계로 된 척도 8문항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문항, 포함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9문항의 합산치를 삶의 질 점수로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것으로, 즉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로는 이명신이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 .90$ 을, 이상복 등(1998)은 .89, 강선경(2002)은 .93, 정미영(2004)은 .92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질문지의 코딩과 통계 처리는 건국대학교 통계상담소에서 수행되었다. 본 자료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 kr이며, 자료 분석에는 빈도와 %, Pearson-r, 중다회귀분석, ANOVA가 사용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에 국한되고 무선표집이 아니므로 한국 전체의 장애아어머니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대표성에 있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질문지의 회수율이 약 70%에 지나지 않은 것과 함께, 회수된 질문지 386부 가운데도 불성실하게 응답이나 중요 변인 또는 인적 사항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외된 질문지가 약 12%였음을 고려할 때,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이 표집의 분석 결과와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장애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비롯하여, 일곱 예언변인 즉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종교 활동 빈도, 사회적 지지(남편의 지지), 운동 유무(운동 빈도), 자녀의 장애 정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월수입)가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

1) 조사 대상자 전체의 삶의 질

장애아어머니 전체의 삶의 질은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9개 항목의 총점 평균이 38.9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한 항목 당 대체로 중간 수준인 4.3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표집된 장애아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애아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랜 동안 장애자녀를 양육한 결과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거나 또는 체념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어머니들이 남편인 장애아아버지보다 다 많은 우울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보고(윤호열·김나영, 2002)를 비롯하여 장애아어머니들의 우울증 수치와 스트레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보고(서혜영, 1992), 나아가 우울과 제반 정서적인 문제로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보고(이용호 등, 1999)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시하여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어머니 연령·장애자녀 연령과 삶의 질

장애아어머니의 연령을 6단계로 나누어 삶의 질과 단순상관을 구한 결과 $r=-.19(p<.001)$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다소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2>의 연령별 삶의 질 평균을 보면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31~35세 연령대가 41.4로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6~40세, 41~45세, 30세 이하의 세 집단은 39점을 다소 상회하는 점수로 비슷하며, 41세 이에서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점차 낮아져 51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장애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삶의 질 역시 단순상관 $r=-.18(p<.001)$ 의 미약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녀의 나이가 5세 이하인 어머니들의 삶의 질 점수가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자녀의 연령이

<표 1> 조사대상자 전체의 삶의 질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39	15	59	38.91	8.181

<표 2> 어머니 연령별 삶의 질

어머니 연령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0세 이하	11	30	50	39.00	6.782
31~35세	45	23	57	41.44	7.745
36~40세	107	20	57	39.40	7.267
41~45세	99	15	57	39.47	7.618
46~50세	61	15	59	36.84	9.754
51세 이상	16	20	54	32.94	9.483

<표 3> 장애자녀 연령별 어머니의 삶의 질

자녀 연령	모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세 이하	39	23	57	41.64	8.057
6~10세	96	20	57	39.30	7.664
11~15세	106	21	59	39.52	7.290
16~20세	88	15	54	37.40	8.754
21세 이상	10	15	48	31.50	11.693

<표 4> 장애아어머니의 학력별 삶의 질

어머니 학력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초등(국민)학교 졸업	5	27	51	38.20	8.672
중학교 졸업	25	20	55	36.40	8.256
고등학교 졸업	155	15	57	37.41	8.857
2~3년제 대학 졸업	54	23	59	40.61	6.855
4년제 대학 졸업	91	26	57	40.91	7.082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9	23	48	41.78	7.870

<표 5> 가정 수입별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

가정 총수입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00만원 이하	28	15	54	35.00	11.366
101~150만원	68	15	59	38.22	9.297
151~200만원	114	23	57	38.09	7.467
201~250만원	69	28	57	40.55	6.822
251~300만원	33	25	53	40.33	7.916
301~400만원	27	35	54	42.30	5.441

6~10세, 11세~15세정도인 어머니들의 점수는 39.3~39.5정도로 유사하지만, 16~20세 정도의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의 점수는 37.4로 상기한 집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21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 31.5에 지나지 않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삶의 질 점수는 장애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 점수는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자녀가 아직 어릴 때에는 다루기도 비교적 쉽고, 또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다루기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의 상태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기대의 좌절과 더불어, 부모가 되는 자신들이 노쇠한 후라든가 나아가 사후에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불안 등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머니 학력과 삶의 질

장애아어머니의 학력과 삶의 질의 단순상관을 구한 결과 $r=.20(p<.001)$ 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어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다소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 4>의 학력에 따른 삶의 질 점수를 보면, 2~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의 삶의 질 점수 평균이 40.6~41.8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 점수 36.4~38.2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4) 가정 월수입과 삶의 질

우선 장애아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약 1,885,000원으로 2007년 한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약 3,675,000원과 비교할 때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나며(장애아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다음 <표 5>의 급간별 중간 값을 사례수로 곱한 합을 전체 사례수로 나눈 것이다), 더구나 소득 또는 수입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는 최빈치의 경우 151~200만원 급간의 사례수가 114명으로 다른 급간의 사례수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볼 때 장애아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아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보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 월수입에 따른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의 단순상관을 구한 결과는 $r=.20(p<.001)$ 으로 나타나,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가정의 월수입 300만원대 이상인 집단의 삶의 질 점수는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200~250만원, 251~300만원대 두 집단의 삶의 질 평균 점수는 40.3~40.6으로 유사하며, 뒤를 이어 101~150만원, 151~200만원대 두 집단 역시 38.1~38.2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월수입 100만원 이하인 집단의 삶의 질 점수는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가정에 있어서 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배우자 유무와 어머니의 삶의 질

배우자 유무에 따라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한 결과, 다음의 <표 6>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없는 장애아어머니의 경우 삶의 질이 더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인 장애아어머니의 경우에 배우자 유무는 삶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종교 유무와 어머니의 삶의 질

종교 유무에 따라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 검증의 결과, 다음의 <표 7>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인 장애아어머니에 있어서 종교 유무는 삶의 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 예언변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 종교활동 빈도, 스포츠·운동 실시 여부, 사회적 지지, 자녀의 장애 정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7개의 예언변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변인간의 단순상관

회귀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상관계수들이 사용되므로, 먼저 제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우선 여러 예언변인들 중 준거변인인 삶의 질과 가장 높은 단순상관을 보이는 것은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으로서 $r=.52(p<.001)$ 이다. 그 다음이 '사회적 지지'로서 $r=.29(P<.001)$ 이고,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두 예언변인은 기준변인과의 단순상관이 각각 $r=.22(p<.001)$ 정도이다. 그리고 '자녀의 장애 정도', '종교 활동 빈도', '스포츠·운동 실시 여부'라는 세 변인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것과는 달리 준거변인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예언변인들 간의 단순상관에 있어서는 우선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이 $r=.45$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그들의 적극적이고 기분해소형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언변인들 간의 관계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로서 $r=.38(p<.001)$ 의 단순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나 가족, 이웃, 학교와 치료기관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지가 장애아어머니들의 적극적이고 기분해소형의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도 $r=.31(p<.001)$ 정도의 상관이 존재하는데, 단순상관으로 인과적 관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아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과 각각 $r=.20\sim.25$ 정도의 상관을, 그리고 '운동 빈도'와는 $r=.18$ 의 미약하지만 유의미한 단순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비롯해 '스트레스 대처유형', '사회적 지지'와 같은 세 변인은 다른 예언변인들과 고른 단순상관을 보이는데, 이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타 예언변인

<표 6> 배우자 유무별 어머니의 삶의 질

배우자	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유의확률
무	54	37.48	9.291	1.264	-1.406	0.161
유	285	39.19	7.942	0.470		

<표 7> 종교 유무별 어머니의 삶의 질

종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유	195	39.41	8.852	0.634	1.328	0.185
무	144	38.25	7.148	0.596		

<표 8> 변인 간 상관행렬표

수치: 단순상관 / N=339

	삶의 질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대처	종교활동빈도	운동여부	사회적 지지	자녀 장애정도	사회경제지위
삶의 질	1	.519***	.215	.096	.078	.293***	.048	.224***
자아 존중감	.519***	1	.448***	.065	.206***	.313***	.030	.242***
스트레스대처	.215***	.448***	1***	.086	.225***	.378***	.076	.250***
종교활동빈도	.096	.065	.086***	1	-.014	.221***	.011	-.029
운동 여부	.078	.206***	.225***	-.014	1	.159**	.006	.184***
사회적 지지	.293***	.313***	.378	.221***	.159**	1	.019	.209***
자녀 장애정도	.048	.030	.076***	.011	.006	.019	1	.008
사회경제지위	.224***	.242***	.250	-.029	.184***	.209***	.008	1

*p<.05, **p<.01, ***p<.001

<표 9>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6717.669	7	959.667	20.792	0.000
잔 차	14493.175	314	46.157		
합 계	21210.845	321			

간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종교활동 빈도’는 예언변인들 중 ‘사회적 지지와’ r=.22의 단순상관을 보이고 있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장애아어머니일수록 더 많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우선 본 연구에서 채택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회귀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종교 활동 빈도, 운동 실시 여부, 사회적 지지, 자녀의 장애 정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7개 예언변인을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해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 7개의 예언변인이 각기 고유하게 삶의 질에 행사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enter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표집에서 얻은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세 변인이었다. 우선, 이 세 변인의 삶의 질에 대한 예언력을 알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 b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한 단위 변할 때 삶의 질은 .68단위만큼,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변할 때 삶의 질은 .16단위만큼,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 변할 때 삶의 질은 .28단위만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이 β=.489(p<.001)로 가장 큰 유의미한 값을 갖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

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자신의 삶의 질을 예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β=.145(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이현치, 2004; 전수진, 2004; 강선경, 2002)이 장애아어머니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직업과 학력, 수입이라는 세 지표로 구성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β=.107(p<.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바, 이 역시 장애아어머니의 학력이나 경제 문제 또는 가정의 수입 등을 중요시한 관련 연구(박혜진·박경란, 2004; 이상훈 등, 1999)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세 예언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β=.489로서 ‘사회적 지지’ β=.145의 3.37배,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β=.107의 4.57배로 나타나, 일곱 예언 변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세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의 크기는 각 변인의 삶의 질과의 단순상관에서 나타난 순서와 같다(‘자아존중감’ r=.52, ‘사회적 지지’ r=.29,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r=.22).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이 가정의 수입, 가정의 직업, 월소득과 같은 객관적·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재적 요인보다는 ‘자아존중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개인 내재적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활동 빈도’와 ‘운동·스포츠 실시 여부’, ‘자녀의 장애 정도’라는 세 변인은 본 연구의 대상인 표집에 있어서는

<표 10> 중다회귀분석 결과

N=339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상수	8.193	2.951		2.776	.006
자아존중감	.679	.075	.489	9.070	.000
스트레스대처	-.090	.105	-.048	-.861	.390
종교활동빈도	.110	.191	.028	.579	.563
운동여부	-1.064	.842	-.062	-1.263	.208
사회적지지	.163	.059	.145	2.763	.006
자녀장애정도	.283	.362	.037	.780	.436
사회경제지위	.280	.130	.107	2.155	.032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상관에 있어서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에서 ‘자녀의 장애정도’가 어머니의 삶의 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복장애가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손상희·박재국, 2003)나, 또는 자녀의 장애가 심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황미희, 2002; 김나영·윤호열, 2000)와는 상치되고, 아동의 장애정도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박혜진·박경란, 2004)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박혜진과 박경란(2004: 634)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자녀의 장애라는 상황을 어머니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운동·스포츠 실시 여부’가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적극적으로 여가를 활용하거나 스포츠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순용·김송희, 2003; 박선영·김준희, 2000)와 장애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김광호와 오광진(2004)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다. 김광호와 오광진(2004)의 연구는 학력과 가정 수입, 직업-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 지표로 사용한-이라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장애아어머니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학력, 가정 수입, 직업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아어머니의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집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운동 여부의 고유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운동 실시 여부’ 대신 ‘스포츠·운동 실시 빈도’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면 관계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본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스포츠·운동 실시 여부’로 분석한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

‘종교활동 빈도’ 역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경득, 2000; Cambell & Converse, 1981)나 한국의 장애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중옥·허정옥, 2002; 이윤화·권진옥, 2002)와 일치되지 않는데 이는 차후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종교 유무에 따라서도 전술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결과 분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상황이라는 것과 또 상기한 국내의 다른 연구들과 분석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등으로 유추할 수도 있으나 종교에 따른 차이 등 더 정밀한 검증은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전술한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의 경우 ‘삶의 질’과 단순상관은 $r=.22(p<.000)$ 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선성의 문제, 즉 ‘적극적·기분해소형 스트레스 대처’의 타 예언변인들과의 상관(자아존중감과의 단순상관 $r=.45$, 사회적 지지와 $r=.38$, 사회경제적 지위와 $r=.25$ 등)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선성의 문제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한 준거변인에 영향을 주는 여러 예언변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검증할 때 나타난다. 본 연구도 검증의 실제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제 예언변인이 그들 간의 상관에도 불구하고 과연 준거변인에 영향력을 갖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선성의 문제가 본 연구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을 요약하면 중다상관계수 $R=.563$ 으로서, 총설명량은 $R^2=.317$ 이고 수정된 $R^2=.301$ 이다(수정된 R^2 는 표집오차를 고려한 것으로서 R^2 보다 더욱 유의미한 통계치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표집에서 일곱 예언변인이 삶의

질에 행사하는 총설명량에 해당되는데, 이는 본 연구 모형으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 중 약 30% 정도를 설명한다는 의미가 된다(총설명량이 30% 정도라는 결과가 일견 만족스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과학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표집의 문제, 응답시의 기계적인 반응 등 여러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의 거의 모든 도구는 완전할 수 없으며 측정오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변인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 역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설명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Scheussler(1979)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구에서 가정했던 영향력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과 변인들 간의 상대적 크기이지, R제곱으로 나타나는 총설명량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세 변인의 설명량은 R제곱=.271로서, 삶의 질에 대한 총설명량 R제곱=.301 중 약 90.0%를 차지하여, 세 변인이 장애아어머니 삶의 질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 본 연구는 상기한 바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아어머니들은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장애아어머니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장애자녀 양육의 결과 그들의 삶을 타성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체념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을 연관시켜 보면,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장애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고, 반대로 어머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 자녀가 성장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적응 프로그램, 예를 들어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 교육 또는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사가 어머니들의 삶의 질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어머니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사회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와 아울러 교육받는 시간 동안 장애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보육

시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아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약 1,885,000원으로 2007년 한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약 3,675,000원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아가족이나 장애인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장애아가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경제적 지원도 유치하는 적극적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장애아어머니들의 삶의 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섯째, 일곱 예언변인으로 삶의 질에 대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대적 설명력 크기 순서대로 제시하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타났으며, 총설명량은 수정된 R제곱=.301로 장애아어머니 삶의 질 전체 변량 중 약 30%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채택된 일곱 요인은 모두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이 요인들로 회귀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세 변인이 여타 변인들이 공존하는 상황 하에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며, 또 어떤 연구도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이 세 변인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나 장애아어머니를 위한 제 정책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은 그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 으로 나타난 것은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장애아가족 관련 정책이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향후 장애아어머니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비롯한 여러 기초연구를 통해 부각된 결과들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당국이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수렴하고 정책 입안 시에 반영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단일 예언변인으로서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이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요망됨과 아울러 장애아어머니들로서도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덟째,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아어머니들에 대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지지, 또는 실제적이거나 정서적인 유형·무형의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아어머니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공정책 차원에서 장애아어머니에 대한 공적인 사회적 지지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들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월수입, 가구주의 직업, 학력이라는 세 지표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장애아어머니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바, 상기한 장애아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할 때, 그들의 경제적 소외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취업 알선과 더불어 부모의 근로 여건 보장을 위한 장애아동 위탁 제도와 시설의 마련, 나아가 장애아동의 교육비와 치료비의 보조, 보장구 구입 시의 혜택 등 다각적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 경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아어머니들 대상의 조사연구에서 그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강선경(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2), 7-35.
- 권경득(2000). 종교활동이 인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보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하 김관해교수 정년기념논문집**, 317-341.
- 김광득.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3.
- 김광기(2002). 여가복지와 생활 질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체육연구**, 16. KERIS.
- 김광호·오광진(2004). 장애아 어머니의 생활체육 참여와 생활 만족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2(4), 55-67.
- 김교현·변주환(2000). 청각장애, 정신지체 및 정상아동 어머니의 생활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및 부적 감정 경험.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1), 327.
- 김나영·윤호열(2000).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결합력. **대한가정학회지**, 38(7), 53-65.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옥·방부경·윤수정·최은주(2002). 중년여성의 지각된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전인간호과학 연구소 학술모음집, 창간호**, 97-113.
- 김봉선 (2007).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뇌성마비인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5-28.
- 김의철·박영신(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박영신·김명언·이건우·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정진(2002).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자원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69-98.
- 김정진·김미옥(2002). 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자존감의 향상과 우울감의 감소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4, 7-36.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이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내천(2007). **청각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김준희 (2000). 생활체육 참가 주부의 가족스트레스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2), 39-53.
- 박진영·박태영. 2001. 발달장애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14-117.
- 박혜진·박경란(2004).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생활만족도. **한국생활과학지**, 13(5), 625-636.
- 송정애·이정덕(2001). 저소득 편모들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부모역할 수행의 특성 및 상호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31, 281-318.
- 손상희·박재국(2003). 지체부자유아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부모의 인식.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42, 159-182.
- 심미경(1997).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대처유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7(3), 673-681.
- 양귀희(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란. 2005. 생활시설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9(2), 29-51.
- 오승아 (2002).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 내구력, 누적 스트레스,

- 의사소통, 가족적 응에 대한 구조모델 검증. **대한가정학 회지**, 40(9), 175-189.
- 이경희(1993). **장애아동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신(1998).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3(1), 97-105.
- 이미연 (2005). **청각장애인의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 · 정영숙 · 이상복(1998).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아와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 **정서 · 학습장애연구**, 14(2), 1-38.
- 이상훈 · 정영숙 · 이상복(1999).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대응적 태도. **정서 · 학습장애연구**, 15(1), 57-76.
- 이수정 · 안신호(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143.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호 · 정용균 · 구영진 · 조수철(1999). 장애아동의 행동특성과 가족환경이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0(1), 100-112.
- 이윤화 · 권진욱(2002). 장애아동 형제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8, 59-85.
- 이창미 (2007).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 삶의 질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1). 69-92.
- 이현지 (2004).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 · 장애아동연구**, 20(3), 73-95
- 임성옥 · 박민정(2006). Q 방법론을 이용한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203-226.
- 임승엽(2000). **기혼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와 운동 몰입경험 및 가정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향(2000). **정신지체아 부모가 지각한 가족기능과 일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장순용 · 김송희(2003).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4, 17-30.
- 장진국(1995). **정신지체아 부모와 일반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진(2005).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 외(2006). **가족복지론**. 서울: 창지사.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세논총**, 11(1), 107-130.
- 전유경(2003). **장애자녀 어머니와 일반자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자 · 김미량(2006).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3), 115-124.
- 정미영(2004).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아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 최희선(1995).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3(1), 123-133.
- 정청자(1988). **장애아 가정의 긴장(스트레스)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광철(2000).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중옥 · 허정옥(2002). 뇌성마비 학생 어머니와 정신지체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 수준 비교 연구. **특수교육아동연구**, 4(2), 55-75.
- 통계청(2008).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nso.go.kr>.
- 황미희(2002). **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thaud-Day M. S., Rode, J. C., Mooney, C. H., Near, J. P.(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445-476.
- Aspinwall, I. G. & Taylor, S. E.(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ristol, M. M., Gallogher, J. J., & Shopler, E.(1988). Mothers and fathers of young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41-451.
- Brookman-Frazee, L.(2004). Using parents/clinician partnership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6(4), 195-213.
- Campbell, A. & Converse, P. E.(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 Hill.
- Fagan, J., & Schor, D.(1993). Mothers of children with spina bifida factors related to maternal psychosoci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1), 146-152.
- Friedrich, W. N., & Friedrich, W. S.(1981). Psychological assets of parents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American Jr. of Mental Deficiency**, 85(5), 551-553.
- Hadaway, C. K. & Roof, W. C.(1978). Religious commitment and the quality of life in American society.

-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9(3), 295-307.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 Miller, E. E.(1986). *Self-imagery: creating your own good health*. Berkeley: Celestial Arts.
- Park, J. H., Hoffman, L., Marquis, J., Turnbull, P., Poston, D., Mannan, H., Nelson, L. L. (2003). Toward assessing family outcomes of service delivery: Validation of a family quality of life surve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4), 367-384.
- Pearlin, L. I., & Mullan, J. T., & Skaff, M. M.(1990). Care 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Scheussler, K. F.(1979). Continuities in social prediction. In H. L. Costner(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ingers, L., & Farkas, K. J.(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38, 444-449.
- Sloper, P. C., Truner, K. S., Cunningham, C.(1991). Factors related to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own's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2, 655-676.
- Turnbull, A. P. & Turnbull, H. R.(2001).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접수일 : 2008년 11월 14일

심사일 : 2008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2일